

금산군의회 대전과의 통합 본격 나서다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 채택

… 금산군의회 의원 7인 전원 찬성



▲ 충남 금산군의회는 16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 대전·금산 행정구역 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충남도내 시군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금산군의회가 인근 대전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문제에 논의되면서 금산군도 대전광역시와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행정자체가 지역내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금산군의회는 16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금산군은 행정구역상으로 충청남도지만 교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질적 생활 서비스의 대부분을 대전광역시 인프라를 이용하는 대전 생활권으로 대표적인 행정구역 생활권이 불일치되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2년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하며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확대됐으며 2014년에는 금산군의회에서 2016년에는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충남도의 동남쪽 끝에 설치된 위치한 금산군은 접경지역이 대전의 접경지역 절반에도 되지 않게 논란과 이슬아슬하게 붙어있을 뿐 충남도의 개발축에서는 원진히 벗어나 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충남 편입 후 60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 못한 금산군민의 커다란 소외감과 교통망의 불편, 교

육·문화·의료·경제 등 실제 생활권과 달리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생활 부담 등을 지적하며 충청남도에서 최고의 변방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금산군은 인구 늘리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 대전도 인구감소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발굴에 나서고 있다.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리으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감소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광역시의 농촌 군으로 체계적인 특화작목 인삼, 깻잎 등의 육성 및 균교시설농업을 통해 농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의 규모 확대 등 금산과 대전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춰 금산군의회는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한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발의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산·대전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적극 추진을 부탁하는 내용 등 금산군이 대전광역시 금산군으로 관할구역 변경을 희망하는 의지를 담겼다.

한편,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건의안」은 금산군의회 7인 의원 전원이 찬성하며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정복 기자



김성구 대전투데이 사장,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환담 나누

장동혁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 현안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장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초선인 제가 큰 중책을 맡게 된 데는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보답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한 의정생활로 우리 정치가 선진 정치로 나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 총장은 "올해 초선의 이슈는 정치개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당도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참신한 인물과 공약을 통한 정치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하나로마트, 지역화폐 사용 개선 요구 봇물

공기업인 농협 지역화폐 사용하게 해야…농민들 불편 가중 개선 요구 목소리 높아

중앙정부가 지역화폐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만 사용이 가능케 한 정책이 턱상 정책이라는 지적이이다.

이로 인해 농협하나로 마트와 농협경제 사업부까지 사용처가 제한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농협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농협하나로 마트와 농협경제 사업부도 마치 개인의 이익과 영리

를 추구하는 기업과 동률하게 적용하면서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하나로 마트의 이익금은 농협조합원

들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30억원 이상 매출이 발생해도 일반 대형마트와는 다르게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해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농협을 지역화폐 사용 못하는 상권에 포함시키면서 농협경제사업장에서 판매하는 비료와 농약, 농자재, 면세유 등이 지역화폐로 구입이 불가능해 농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면 단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화폐

를 사용 하려면 멀리 떨어진 시내까지 나와

야 농기구와 생필품 구입이 가능해 불편함

해소가 요구된다.

서산시의회가 농협하나로 마트와 경제사

업장에서 지역화폐를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만 개정해 줘도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주민 A씨는 "농협하나로 마트는 농민들이 주인이다. 배려 없는 탁상행정 때문에 농민들이 주인인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삽이 나 벗자루 한 자루도 놓사는 이런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화폐를 농협하나로 마트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많은 농민이 비료·농약 등 농사에 필요한 생필품을 인근에 위치한 농협하나로 마트를 이용해 불편을 꼭 해소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정부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 지역화폐를 농협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구하는 민심을 받아들여 시행령을 개선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산 김정현기자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2024년에도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www.youtube.com/@sejong_cc
www.facebook.com/councilsejong

국토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KTX·SRT 역구성 최대 30% ↓

정부는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구성 승차권을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통·건설·물류 분야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2월 9~12일)에 고속도로 이용이 무료다. 통행료 면제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라도 적용된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구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 4인 기족 동반석은 15% 할인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구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인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 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주당 4천600여회로 지난해 말(4천200회)에 비해 약 10% 증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통망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디자인 달 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산하 공공기관 14곳이 별주한 공사 현장에서 벌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뒤 설 연휴 이전 조기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불 시 이를 막기 위한 제재 시정조치, 과정 금등도 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 통행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지역별로 부당 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 화물차 운송거

부 등 부당 운송행위에 적극 대처 하기로 했다. 또 배송불량 폭증에 대비해 분류인력 등 인력 6천 명(잠정)을 추가 투입한다. 택배기사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 주문 등을 독려하는 내용의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 29일~2월 29일)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김진표 의장, 모로코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 주최

"모로코의 높은 韓 평가는 교민·지상사 활약 덕... 14년 만의 방문, 어려움 함께 논의"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모로코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현지시간) 모로코 방문 첫 번째 일정으로 수도 라바트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견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한국이 최초로 대사관을 개설한 국가로 이후 꾸준하게 양국 관계가 발전해 왔다"며 "모로코가 한국을 모델로 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등 한국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교민들과 지상사 여러분들의 활약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9월 모로코 남부 미라케시 인근 알-하우즈 지역을 강타한 지진 피해에 교민사회가 온정을 베풀어줘 감사드린다"며 "국회의장으로서 14년 만에 방문한 만큼 어려움을 벌어놓고 함께 의논하자"고 말했다.

박세업 NGO 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지부장은 이에 "한국은

국제사회 곳곳에서 뛰어난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바, 김 의장의 방문은 단기적으로는 한-모로코 교류협력을 공고화하는 계기 이자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아프리카·유럽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또, 심재석 재모로코 법인장은 모로코 현지에 인력을 교육해 한국으로 송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와 관련한 한국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국이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만큼 양성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ODA 사업을 현지 인력양성과 결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우리 정부에도 촉구하고 있다"며 "내일부터 모로코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만큼 오늘들은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민호 KOTRA 무역관장은 "모로코 철도청이 국제입찰한 전동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포함된 만큼 모로코 최고위급에게 한국의 우수한 철도산업 기술이 모로코 잘 이식되어 아프리카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모로코는 한국이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해 얻은 국민통합 및 복지수준 향상 경험을 전수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김현중 삼성전자 마그레브 법인장 및 양진욱 포스코인터내셔널 모로코 지사장은 모로코

위원회 모로코 내 한국문화원 설립을, 박세업 NGO 글로벌케어 북아프리카지부장은 한국 NGO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모로코 법령상 혜택 제공을, 이주형 아프리카 한글학교 협의회 회장은 교육기자재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에 "모로코 내 한국문화원 설립은 대사관 차원에서 노력 중이고, 교육기자재 예산 확대 등의 요구사항은 재외 동포청장에게 적극 전하겠다"고 답했다.

▲ 저출생 정책 수혜 어려움 토로에 '저출생 해결 위한 보육·교육·주거 혁신 절실' 강조 한편, 대사관 소속 박장근 영사가 아동수당 등 저출생 관련 정책을 수혜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자 김 의장은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생 대책 예산으로 380조 원을 썼으나 아직도 구멍이 많다"며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걱정 말고 날아라,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보육혁신', 사교육비 지출을 낮추고 공교육 질을 높이는 '교육혁신' 및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주거혁신' 등 3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치권의 협치를 주문하는 교민들에게 "저출생이 당면한 현안과제라는 데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는 만큼 현법에 인구대책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 4월 총선에 개헌을 통해 이를 규범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김성구기자

충남도의회 "학부모교육지원

통해 부모·자녀 이해 증진"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흥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계약 형성,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위한 조례안' 발의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의원은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을 최근 학원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각종 광고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전광역시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의 경우 마약류 상품명을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해 5년마다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관련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하고 관련 캠페인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란 학생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 지역으로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설정·고시한다.

이번 두 조례안은 제25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으로,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여 마약으로부

터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최근 학원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 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각종 광고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시·광고 변경시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된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두 조례안은 오는 1월 2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은 물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은 물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대전광역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약류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시·광고 변경시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된 정책 추진 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두 조례안은 오는 1월 23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 공약 발표

김영석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영석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아산갑)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지키기 방탄국회와 장관·판사·검사 등을 국회 탄핵소추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원은 재판중이거나 심지어 구속수감 상태에서도 직무정지 없이 세비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중인 경우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나, 기타 법률 위반으로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피선거권 제한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일단 최종 판결 전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시키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무정지 기간 동안 국회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의 첫째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소위 '방탄국회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제44조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 개정 없이 폐지 불가능하다. 하지만 김 후보는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열리는 회기(會期) 중에 부여되는 것"이라면서 "정기회와 임시회, 그리고 임시회 사이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非會期)를 일정 기간에 예상·지급 문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직무정지' 시 세비 등을 지급 유보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만일 직무정지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이 재판을 끝여 임기를 다 채우는 일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직무정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영석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의 첫째 공약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소위 '방탄국회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제44조에 규정되어 있어 헌법 개정 없이 폐지 불가능하다. 하지만 김 후보는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열리는 회기(會期) 중에 부여되는 것"이라면서 "정기회와 임시회, 그리고 임시회 사이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非會期)를 일정 기간 예상·지급 문제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직무정지' 시 세비 등을 지급 유보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만일 직무정지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이 재판을 끝여 임기를 다 채우는 일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직무정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세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영석 후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으로 21대 국회의원의 본 회의 평균 출석률은 92.0%"라면서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회의 출석률이 90% 이하일 경우 세비·수당 등을 산정·지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동료시민이나 생활인이 1년에 30일 이상을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음에도 그동안 각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지킬 수도 없는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이나 약속'만 되풀이하는 것은 진정으로 특권을 내려놓기 쉽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기 정책설명회 및 자료 배포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같은 기준으로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에게는 임기 내내 의정활동을 흥보할 수 있는 의정보고회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고 있어 예비후보자들에게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정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찾아내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영석 후보는 장애인·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청년(만 39세 이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으로 전체 유권투표의 15% 이상을 드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에서 15% 미만을 드표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으로 전체 유권투표의 15% 이상을 드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에서 15% 미만을 드표할 경우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장애인이나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인지도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이라면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출마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장애인과 만 3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생애 첫 출마한 선거 1회에 한해서 드표율 3% 이상은 50%, 드표율 5% 이상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공약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만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과 청년을 생각한 김 후보자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일치하는 합리적인 공약이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공약들은 우리 동료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 방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비대위원장(위원장: 한동훈)에 이들 5개 정치개혁을 국민의힘 선거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종선 이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산=리량주기자

강철승 전 황운하 보좌관,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도전

"중구를 프랑스 파리 같은 멋진 도시 만들 것"

</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 선도하는 대전교육 위해 최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2024년도 대전교육 주요 정책 발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6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2024년도 대전교육 주요정책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설동호 교육감은 “2024년은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체계적으로 구축해 온 교육체계 기반 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2023년도 주요 성과』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한 디지털교육 기반 조성

디지털 교육환경 설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일반 및 특별교실에 무선망을 설치하였고, 스마트칠판과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완료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1인 1단말기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스마트기기 활용 연수 및 스마트온(ON-온) 교사단 운영, 스마트기기 활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교육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원의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에 집중하였다.

▲교育과 돌봄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공교육 책임 강화

초등 대전늘봄학교 운영을 통해 초등 돌봄교실 대기인원을 전원 해소하였고, 관내 5개 학교가 교육부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대전형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도 졸업앨범비, 현장체험학습비 확대 지원, 무상급식비 단기 인상, 유아교육비 지원 등 교육과 돌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였다.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한 대전교육의 성과

다양하고 내실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학생들은 전국과학전람회 대통령상,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대상, 전국학생 과학발明품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등 다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교원 또한 전국교육자료전 참가팀 전원 1등급 수상,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전국 최다 입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행정 부분에서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최우수교육청 달성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4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 위(Wee)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5년 연속 대상 등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하였다.

『2024년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

1. 미래역량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실현

【체험과 활동 중심 수업으로 창의성 함양】

▲대전 과학교육브랜드인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노벨과학동아리 200팀 지원과 노벨과학동아리 간 교류와 과학 팀구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노벨과학체험전 노벨과학동아리 발표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과 창의력을 제고한다. 수학나눔학교 10교 운영, 대전수학축전 참여팀 확대 등으로 탐구·체험 중심의 수학교육을 활성화하고, 메이커교육 운영학교도 올해 42교로 확대하여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세대공감 학교·인성 캠프』와 학생 독립 영화제를 신규 운영하여 세대간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고 체험중심의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우리 반 온 책읽기’와 ‘길잡이 독서’, 독서동아리 ‘너와 누리 책두레’ 확대 운영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융합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무대, 학생문화예술관련 지원 및 예술융합 프로그램, ‘365플러스 체육온활동’, 토요스포츠클럽 토스리그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함양 및 건강한 정서적·신체적 성장을 지원한다.

【미래역량을 키우는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환경】

▲학교인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조록꿈미당’을 8교 추가 구축하여 총 24교를 운영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학생동아리, 녹색환경 조성으로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녹색환경생태학교 운영 등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한다.

▲그린스마트스쿨과 학교공간혁신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기존의 노후된 학교공간을 미래형 학습공간으로 개선하는 그린스마트스쿨 18교와 학교내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7개 영역에서 총 12교 추진하여 교육과정의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담은 미래형 학교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온 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마을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을학교’, 운영 확대, 학교-마을 연계 등으로 ‘씨앗동아리’와 ‘마실행복 중점학교’를 지속 운영하며, 우리 지역 5개 자치구와 연계한 행복이음교육지구 네트워크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2. 배움과 성장이 중심이 되는 혁신교육

【함께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교실수업 혁신】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교실수업 문화 조성을 위해 질문하는 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자기 주도적 수업 여탕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훈공교실’, 교원의 자기 수업 성장을 위한 찾아가는 일상수업나눔회, 교원 수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확대 운영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깊이 있는 학습으로 배움이 즐거운 수업문화를 조성한다.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위한 학교과정 내실화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원 연수, 연구학교 및 교육과정 연구회, 맞춤형 컨설팅 등 협장 지원을 강화한다.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 적정 규모화를 위한 거점유치원 지정·운영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1일자로 유·보·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대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중심 관리체계 통합으로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희망된 배움터에서 키워가는 미래역량】

▲대전AI·SW교육지원센터의 창의적 체험교실, 메이커교육지원센터의 AI융합 메이커교육 체험프로그램, 대전수학문화관의 수학체험교실 및 수학문화아카데미 등 교실 밖의 다양한 학습공간에서 창의성과 탐구역량을 키우는 융합교육을 실천한다.

▲인터넷 화상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업을 교류하는 해외 온라인 수업교류를 48개 초·중·고등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직업계과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도 올해부터 호주, 독일 2개국으로 확대하여 45명의 학생들이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며,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미국 실리콘밸리를 연계하여 실시하는 학생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에 34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등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배움터를 국내외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3.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책임교육·맞춤교육 강화

【빈틈없는 지도, 체계적인 관리로 더 견고해지는 기초학력보장】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방과후 교과보충 프로그램, 학습지원센터, 방학중 학습 도약을 위한 교과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교사연수, 연구회 운영으로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과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 신규 지정·운영으로 학습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전문적·맞춤형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는 1수업 2교(강사 제이) ‘전학력강사제’, 외국어·방과후·휴업일·방학에 소인수 및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한부루공부방’, 초·중학교에서는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읽고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해서는 전문기를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 밖에도 ‘찾아오는 &찾아가는 수학클리닉’, 교육활동 보조를 위한 긴급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악성민원을 대응하는 통합민원팀 운영으로 교원과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및 교육활동 친화행위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피해교원의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 지원 등 교원의 마음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 나간다.

【쪽넓은 꿈 실현의 기회 제공】

▲2025년 대전 최초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전환하는 동명중학교의 학교 시설 개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학제 개편에 따른 준비를 지원한다. 더불어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와 서남부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 추진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꿈 실현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의 성장을 위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학생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의 지원과 서비스를 학생 중심으로 연계하는 ‘학생 맞춤통합지원체계’를 신규 구축한다. 올해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을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고 동·서부 관내 2개교를 선도학교로 운영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만들어 갈 방침이다.

【초등 대전늘봄학교 확대 운영】
▲2024년 초등 대전늘봄학교는 학교의 특성과 자율적 선택을 반영하여 시범학교 29교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중점교 41교를 추가하여 총 70교를 운영한다.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양질의 방과후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며,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업무지원 확대 및 인력 증원으로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을 강화한다.

【4.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제로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하여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시안조사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과 학교폭력 예방 종합지원단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현장이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도록 한다.

▲학교대상 법률 ONE-STOP 서비스인 「1교 1 변호사제」 실시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악성민원을 대응하는 통합민원팀 운영으로 교원과 교육 활동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및 교육활동 친화행위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피해교원의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 지원 등 교원의 마음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 나간다.

▲1월 1일자로 동서부교육지원청 내에 학교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업무경감으로 교육활동 전면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교육청과 학교사업 계획을 연계하여 학교자체 계획수립을 최소화하는 「학교 공문 연동 제도」를 신규 운영하며, 가정통신문 발행번호를 폐

지하는 등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혁신으로 현장을 지원한다.

【안전한 학교환경,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

▲학생안전보호실과 학교 CCTV 추가 설치, 배움터지킴이 인력 확대 배치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교통지도인력을 활용한 ‘워킹 스클버스’, 운영과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개선, 석면제거와 내진보강, 시설안전 점검 등으로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해 나간다.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을 올해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운영하며, 학생 불균형 체형관리 및 비른성장지원 사업으로 희망 학생에 대해 체형검사 실시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체형교정, 운동프로그램 제공, 성장판 검사 등 학생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무상급식비 지원 단기 이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더욱 높여가며 학생 건강을 증진한다.

▲또한, 에듀힐링센터 확장 이전,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조성 등 교육가족의 건강, 쉼과 휴식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5.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기반 구축

【대전 디지털 드림(Daejeon Digital Dream) 추진】

▲대전형 디지털 교육인 「대전 디지털 드림(Daejeon Digital Dream)」을 추진한다. 먼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한 드림1」 운영으로, 신설 학교 및 증축교실에 디지털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중등 영어·수학·정보교사와 초등 전체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는 등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과 교원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드림2」 추진을 위해, 디지털 교육 전문 터치(TOUCH) 교사단과 스마트온(ON-온) 교사 지원단을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 연구학교·선도학교를 22교로 확대 운영하는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활성화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스스로 찾아가는 미래형 수업 기반 마련】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공립 온라인 학교를 9월에 개교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최첨단 디지털 교육 설비 및 인프라를 갖추고 쌍방향 원격 및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강의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1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

하는 고교-대학 원클래스, 학생 강좌와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인 ‘너두나두 공동교육과정’을 지속·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을 구현해 나간다.

▲직업계고 교육력 제고 및 신산업분야 미래직업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직업교육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4월에 개소한다. 미래직업교육센터는 신산업분야 첨단 기자재를 갖춘 공동실습시설로서 제1센터는 대전산업정보고에, 제2센터는 충남 기계공업고에 구축하여 대전 직업계고 학생들이 신기술·신산업, 지역 특화산업분야의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신산업분야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미래교육 클러스터 본격 추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미래교육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교육 클러스터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인근 유류 부지에 진로교육 전문기관인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외국어교육과 국제교류의 컨트롤티워 역할을 하게 될 대전국제교육원,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박물관인 한밭교육박물관을 이전하여 대전창의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거점단지로 조성함으로써,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지역발전의 중심에서 교육혁신을 이끌어가는 대전교육】

▲학교공간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한다. 대전고등학교 체육관 부지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체육관 등의 생활SOC 복합시설과 충남중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설립을 추진하여 학생에게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평생 학습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교육부 공모에 추가 신청하여 자치구별 균형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대학·기업·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특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교육혁신을 이끌어가는 대전교육을 실현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2024년 대전교육은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혁신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하며, “대전교육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정정●

구민과의 콘서트 행사



박희조 동구청
장 = 17일 오
전 10시 용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열
리는 용운동
새해맞이 구민과의 콘서트 행사
에 참석.

지원봉사협의회 월례회의



이동한 부구청
장(중구청 장
권한대행) =
17일 오전 11
시 중구청 중
회의실에 서
열리는 '지원봉사협의회 월례회
의' 참석.

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



서철모 서구청
장 = 17일 오
후 4시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열리는 서구
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에 참석.

신년언론사방문행사



정용래 유성구
청장 = 17일 오
전 9시 50
분부터 신년
언론사 방문
행사 참석.

안전점검회의 교육



최종규 대덕구
청장 = 17일
오후 2시 구청
청렴관에서
열리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교육
에 참석.

대전소방 119전화벨, 지난해 하루 평균 1,030건 1분 24초마다 울려

"안전 서비스 세계 일류 도시 만들터"



대전소방본부는 지난해 총 37만 6,082건을 신고접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030건으로 약 1분 24초마다 1건을 처리한 수치이다.

화재·구조·구급 및 기타 안

14%(1,230건) 증가했다.

기타 비긴급 출동 건수는 21만 3,615건(67.82%)으로 작년 20만 2,636건 대비 약 5%(10,979건) 증가했으며, 병원 안내 등 의료상담이 6만 7,087건(17.8%), 일반안내 6만 3,229건(16.8%) 순으로 접수됐다.

또한, 최다 신고 시간대는 09시에서 10시 사이 2만 4,096건(6.41%)이고 최소 신고 시간대는 04시에서 05시 사이 6,762건(1.8%) 이었다.

한편, 소방본부는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첨단기술활용 공공서비스 혁신사업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인공지능 기반 변역 알고리즘을 통한 실시간 문자 번역(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

다. 특히, 영어·중국어 2개 언어에 대해서는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국인 신고자와 119상황실 간 언어장벽을 낮춰 출동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시범운영 : 2024년 2월까지, 본 운영 : 2024년 3월~

김화식 대전소방본부 119종합 상황실장은 "대전소방은 올 한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119 신고접수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외국인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9신고접수시스템도 활성화하여 안전 서비스 세계 일류 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중구 문창·태평 전통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완료

주민참여예산 통한 현대화사업비 1억 투입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문창·태평전통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창·태평시장 고객쉼터는 건립한지 10년이 넘어 내부 시설과 집기류들이 낡아 이용 고객들이 불편을 겪어 시설보수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중구에서는 주민 참여에 산제도를 통해 확보한 1억원의 예산으로 문창전통시장은 ▲출입구 에어포레셔 설치 ▲천정 벡스 및 내장재 교체 ▲화장실 수전 교체 등을 추진하였고, 태평전통시장은 ▲쉼터 앞 데크 및 난간대 설치 ▲쉼터 내 led 조명등 설치 ▲빔프로젝트 교체 ▲화장실 노후세면대 교체 등을 완료하여 전통시장

을 찾는 고객들과 상인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고 쉼터 내 물품도 상인회에서 자체 교체하는 등 더욱 편리한 편안한 전통시장으로 변신했다.

시장의 한 상인은 "그간 고객쉼터가 노후화되어 이용고객과 상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다"라며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고객들이 카페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꼭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상인들이 함께 웃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동구, 대전 5개 자치구 중 최고 점수 획득하며 훈련 성과 인정받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335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매년 시행하는 훈련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2일 동부소방서, 한국철도공사, 국기철도공단 등 13개 유관기관과 성모병원, 선별원,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민간기업·단체 300여 명과

하는 훈련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법무기적 종합 훈련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2일 동부소방서, 한국철도공사, 국기철도공단 등 13개 유관기관과 성모병원, 선별원,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민간기업·단체 300여 명과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 중화재로 인한 철도기관 공동사옥 대형화재'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희조 동구청장과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장인 고현덕 동구 부구청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실시간 통합 연계 훈련을 진행해 실전과 같은 대

응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훈련을 실전같이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루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동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선 기자

대전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개소... 다빈치Xi 도입

장비·전문인력·시설 등 안전한 로봇수술 시스템 구축

기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병원장 강진용 신부)이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기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최근 로봇수술장비 '다빈치Xi'를 도입하고 신부인과 정인철 교수를 로봇수술센터장으로 임명하는 등 안전한 로봇수술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도입한 로봇수술장비는 최신 버전의 제4세대 '다빈치 Xi'로,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한 피부 최소 절개로 통증과 출혈이 적고 흉터 및 합병증 발생률이 줄어 향상된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수술보다 최대 15배 이상 확대된 입체적인 시야로 미

세한 병변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며 환자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전성모병원은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로봇수술센터 의료진과 적용 대상 질환을 △산부인과(자궁근증, 난소증양,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탈출증) △비뇨의학과(전립선암, 신장암, 신이식, 방광암) △간단췌외과(담낭당도질환, 혀장질환, 간절제술) △유방갑상선외과(유방암, 갑상선암) △위장관외과(위암, 비만대사수술, 항역류수술) △대장항문외과(대장암, 직장암, 직장탈출증) △이비인후과(인두암, 경구강갑상선수술) △심장혈관부위(폐암, 식도암, 심장

판마수술) △미취통증의학과로 구성하고 환자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인철 로봇수술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은 "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수술은 안전성과 만족도 면에서 장점이 확인된 만큼 로봇을 이용한 수술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난이도 수술 경험이 많은 각 진료과 의료진과 협업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주)다비정건설, 희망2024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50만원 기탁

(주)다비정건설 박남선 대표(오른쪽)가 16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재우 회장(왼쪽)에게 희망2024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50만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엔젤봉사단 발대식 개최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재용)는 16일 대덕구청 대회

의실에서 엔젤봉사단(단장 이영숙)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최종규 대덕

구청장과 박재용 대덕구자원봉

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엔젤봉

사단 30여 명이 참석했다.

엔젤봉사단은 장애아동 급식

보조, 구청·민원 행정 도우미 봉

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

행할 예정이다.

이영숙 엔젤봉사단 단장은 "이

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회원들이 모여 봉사단을 구

성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자원

봉사가 필요한 곳에서 솔선수범

하는 봉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재용 대덕구자원봉사센터

김태선 기자

대출 지원 '대덕뱅크' 시행

대덕구, 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과 맞손

대덕구(구청장 최종규)는 고금리, 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오는 17일부터 대출 지원 사업 '대덕뱅크'를 시행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대전시에 있는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최종규 대덕구청장은 "대덕뱅크 사업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경제 현장을 지켜온 소상공인분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3대 30년 전통맛집' 책자와 이북(e-book) 발간

"지역 경제 활성화·맛집도시 구축"



대전시는 3대 30년 전통 음식점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3대 30년 전통맛집' 책자와 이북(e-book)을 발간했다.

이번 맛집 책자는 3대 30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음식점 30곳을 대전시 인증 전통맛집으로 지정하여 대표 메뉴와 사진, 전화번호, 영업시간, 주차 여부, 휴무일, 위치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업소별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구별로 가나다순 목록을 수록하고 대전 지도를 배경으로 30개 업소를 위치에 맞게 업소명과 쪽수를 할게 기입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왔다.

특히 각 음식점별로 인터뷰 내용을 수록하여 전통맛집의 강점을 부각하고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책자는 대전 지역 관광안내소 및 주요 호텔 등에 배포됐으며,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의 맛' (www.daejeon.go.kr/fod/index.do)에서 이북(e-book) 무료 열람 및 pdf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책자 외에도 SNS,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이번 3대 30년 전통맛집 책자 발간이 대전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대전의 맛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외식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전을 다시 찾고 싶은 맛집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노인일자리참여자 직무교육



최재구 예산군
수 = 17일 오
후 2시 노인종
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시니
어 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에 참석.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



이용록 홍성군
수 = 17일 오
후 1시 30분
홍성을 마을
단위 민생현
장 방문.

2024 불소용액 양치사업 운영

예산군 보건소는 군민의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해 불소 양치 용액을 무료로 배부한다.

불소 양치 용액은 구강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속 당과 세균의 형성을 억제하고 치아 부식의 원인인 산으로부터 치아 표면을 보호해 충치 예방 및 시민이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적인 양치 방법이다.

불소 사용자는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질한 후 불소 양치 용액 10ml 정도를 입안에 머금고 1분간 기글 후 뺏어내면 되며, 용액을 뺏어낸 이후 1시간 정도는 불소 성분이 치아 표면 흡수를 위해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불소 양치 용액 수령 혜망 군민은 누구나 보건소 및 12개 보건 지소, 16개 보건 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소 용액 양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양치 방법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구강 관리 방법”이라며 “많은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도 스스로 구강 건강 관리를 실천해 구강 질환을 예방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가축전염병 방역현장 상황 점검

정경용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16일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전의·소정)을 방문해 가축전염병 방역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소독과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SI)는 지난 12월 3일 전남 고흥군 육용오리에서 발생한 이후 전남·북·충남·경기도, 경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생 건수는 5개도 13개 시군 총 29건이다.

최근에는 시·군·현 천안, 아산 지역까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 집중 예찰·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조기 검출을 위해 ▲ 전기금농가 1회 정밀검사 ▲ 축산관련시설 및 환경 검사 ▲ 1농가 1전담관제를 통한 매주 농장 예찰 등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금농가 670건, 거점소독시설 등 축산관련시설 165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계적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해 꼼꼼한 소독과 농장관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병원성 AI 의심 축 발행시 우리시 동물위생시험소에 즉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2045 탄소중립기본계획 최종안 나왔다

道,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위촉 및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 확정·발표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정부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도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호 지사를 비롯해 이정섭 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공동 위원장, 이구용 부위원장 등 제2기 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함께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물려 있고, 석유화학과 제철 등 고탄소 산업이 밀집해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지역”이라며 “전국 탄소배출량 7억톤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충남이 못하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건에서 저는 ‘전교 팔찌가 전교 1등을 하겠다’는 역발상 전략으로 재작년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며 “현재 탈석탄·에너지전환과 산업체연,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지사는 또 “탄소중립은 ‘도 불소 사용자는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질한 후 불소 양치 용액 10ml 정도를 입안에 머금고 1분간 기글 후 뺏어내면 되며, 용액을 뺏어낸 이후 1시간 정도는 불소 성분이 치아 표면 흡수를 위해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불소 양치 용액 수령 혜망 군민은 누구나 보건소 및 12개 보건 지소, 16개 보건 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소 용액 양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양치 방법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구강 관리 방법”이라며 “많은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도 스스로 구강 건강 관리를 실천해 구강 질환을 예방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끼를 같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자친의 강한 집념과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도록 충남은 탄소중립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선포에 이어 강력한 탄소중립 의지를 내내외에 다시 한 번 알렸다.

최종안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힘쎈충남’이란 비전 아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수립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종실히 준수하기 위해 도내 경제·사회적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는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등 8대 부문 24개 과제와 11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도가 관리하는 부문은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 기반 6개이며, 77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건물 부문은 충남 및 충청 건물 온실가스 관리와 저탄소 제로에너지 도시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8년 802만톤 대비 2045년에는 8만2000톤으로 90%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 중심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탄소배출 없을 청정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 462만 7000톤에서 69만 4000톤으로 85% 감축이 목표이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축산환경 조성 및 친환경농업 육성 위해 11개 사업을 추진하며, 감축 목표는 386만 2200톤에서 115만 9000톤으로 699%를 감축한다.

폐기물 부문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의 원천적 감량과 효율적 활용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는 133만 2400톤에서 65% 감축한 46만 6000톤이다.

흡수원 부문은 탄소흡수율 고려한 산립탄소흡수율 보전·확대, 해양환경 개선을 통한 블루카본 인증 및 확대로 기후탄력성 회복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8년 기준 탄소 흡수량은 139만 7200톤이며, 2045년 목표 흡수량은 314만 4000톤이다.

이행기반 부문은 범도민, 전 산업 분야에 대한 대응기반 마련과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

해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은 전환 및 산업 2개 부문이며, 3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전환 부문은 화석연료 에너지 전환에서 발생하는 자·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 정의로운 충남형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탄소중립적 산업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그린사업을 선도하는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도 및 시군 탄소중립 관련 부서, 도민 설명회 등 30회 이상의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 12월 초 인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합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로서 도의 특화전략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차운 회의, 한국환경공단 교육 및 자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 기존 과제를 보완하고 도민 수용성을 높였다.

김정환 기자



2024 갑진년 읍면 연두방문 추진

예산군, 오는 22일부터 군민과 소통 대회의 장 마련

최재구 예산군수는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위한 읍·면 연두방문에 나선다.

이번 연두방문은 민선8기 3년차를 맞아 군정 운영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옛도 초청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민원 및 건의 사항은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며, 건의 사항은 관

예산=박제화 기자

오래된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 지원에 3억원 투입

예산군, 2024년 시설하우스 노후시설교체 지원사업 26일까지 신청 접수

대를 도모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노후 시설 하우스를 보유한 관내 주소지를 둔 농가이며, 농가당 최대 3동(1동 660㎡ 기준)씩 총 18동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시설하우스(1중)

2만5000원/m² △시설하우스(2층) 2만8000원/m²으로 자동개폐기 및 스프링쿨러 설치를 포함하며, 종 사업비의 5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 농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오래된 시설 하우스는 폭설, 강풍 등의 자연 재해에 취약해 쉽게 망가지는 만큼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노후시설 교체를 통해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작물 재배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 기자

열차+관광택시 특별 할인 상품 출시

홍성군, 열차 TIGO 택시 TIGO 남당항 새조개 먹으러 가자

집 밖으로 나가기 싫은 추운 겨울, 놓칠 수 없는 홍성군 겨울 별미 남당항 새조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있는 홍성 관광상품이 출시됐다.

홍성군은 2023년 ‘홍성 신바eks 관광택시’를 운영하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홍성을 여행할 수 있는 홍성 여행 관광상품을 출시하여 큰 성과를 이룬 바 있다. 2024년에는 기차와 택시를 결합하여 특별 할인 금액으로 구성된 관광여행 상품으로 ‘홍성 관광택시 투어’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홍성 관광택시 투어 상품은 1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인 홍성남당항 새조개 축제(3월 30일까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출시됐으며, 영등포·홍성행 열차 도착 후, 미리 예약된 ‘홍성 신바eks 관광택시’를 타고 어디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축제장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원하는 곳은 홍성군에 많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기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열차 연계 홍성여행 상품으로 홍성을 찾이주시는 방문객들의 교통 불편 사항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친절하고 안전한 홍성군 관광택시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요금은 무궁화호 외국 열차비용과 신바eks 관광택시 기

바르게살기운동 부강면위원회

주민과 함께 신년 맞이 환경정화



세종시 부강면(면장 임현관)이 지난 15일 새해 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부강면 노후2리 마을 주민들과 바르게살기 운동 부강면위원회(면장 오남영)는 주도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기구기에 참여했다.

주민들은 골목 안길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도로변에 무단 투기된 생활쓰레기 약

김정환 기자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받으세요”

세종시,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연세액의 4.57% 할인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즉,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예산군, 예산읍 창소3리 일대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완

우리/동/네

3명 숨진 천안 공사현장 옹벽 붕괴사고… 건설업체 관계자들 실형



신방동, 천안청룡로타리클럽과

복지 증진 위한 협약 체결

천안시 신방동(동장 조원환)은 16일 천안청룡로타리클럽(회장 유효민)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청룡로타리클럽은 결식아동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천안청룡로타리클럽은 수년 전부터 신방동과 인연을 맺고 수차례 협력해왔다.

유효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방동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게 됐으며,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원환 동장은 “두 기관이 협력체계를 유지해 활발한 사업을 통해 취약아동 결식 해소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장애인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연합회장 김상현)는 16일 천안시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리며 후원금 5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에 전달했다.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는 기업 간 협력 및 융합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단체다. 후원금은 천안시누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되어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상현 회장은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는 78개 회원사, 중소기업인 479명이 활동 중이며 기업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에 복지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운행 이사장은 “회원들의 귀한 마음이 모여진 후원금만큼,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투명하게 잘 수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작산읍 행복기금지원단 2024 정(情) 담은 꾸러미 나눔 행사

작산읍 행복기금지원단(단장 안형근)이 16일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2024 정(情) 담은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천안시복지재단 지정기금으로 추진됐으며, 행복기금지원단은 2021년부터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생계가 어려운 이웃 40가구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인부를 확인하고 있다.



불당2동 행복기금지원단, 영양 만점 튼튼꾸러미 전달

불당2동 행복기금지원단(단장 조성연)은 16일 겨울 방학을 맞아 취약계층이동 24가구를 대상으로 영양 만점 ‘튼튼꾸러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행복기금지원단은 불고기, 콩나물, 두부, 쌀빵, 쿠키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대상 가구에 전달하며 인부를 확인하고 있다.

법원 “안전사고 방지·주의의무 위반 죄책 무거워” 징역 2년 선고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옹벽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이진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체 운영자 A(57)씨와 현장소장 B(6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건설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6일 천안시 직선을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업체 대표와 근로자 2명 등 3명이 부너진 옹벽에 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옹벽 아래에서 우수관로 설치공사를 하던 피해자들은 무게 310kg의 블록·토사가 쏟아지면서 매몰

됐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설계도와 다르게 옹벽을 수직으로 쌓고 옹벽 축조 과정에서 블록 일부가 뛰어나오는 배부를 현상을 발견하고도 공사를 진행했다며 기소했다.

이 판사는 “설계 도면에는 기울기를 주어 블록을 들어쌓게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쌓았고,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를 방지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미 비정상적

인 것을 관찰하고도 안전성 평가나 위험 제거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은 안전사고 방지 와 주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정

2024년 읍면동 방문



박상돈 천안시장
= 17일 오후 1시
30분 수신면 행정복지센터, 오후 3시30분 성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리는 2024년 읍면동 방문에 참석.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17일까지 이틀간 천안역 증개축 사업 현장 등 추진상황 점검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이 17일까지 주요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김 부시장은 현장 방문 첫날인 16

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17일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 단지로 최종 신청된 성환종족장이 전부지, 축구종합센터, 천안과학산업 진흥원과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의학 연구원 대상지가 포함된 불당동 R&D 집적지구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석필 부시장은 “역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천안역 증개축, 도시재생 등 대규모 장기 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을 근간으로 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올바른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달 말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시행 예정

천안시는 부분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달 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시행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성장관리계획 관련 부서장 및 관련 전문가와 옹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천안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 기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시 공장 및 제조업 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천안시는 계획 관리 지역 139㎢ 중 약 80㎢를 주거·산업·일반·관리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해 구역별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22일까지 성장관리계획안



에 대해 2차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계획 내용을 최종 검토해 이달 말 결정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새로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 주

택 등 용도 흔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겠다”며 “성장관리계획 이행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주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거급여 임차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8%로 확대

천안시는 올해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기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시 공장 및 제조업 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수선유지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 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 원/7년 주기)로 구분해 지원된다.

제40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입상작 특별전시

제40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입상작 특별전시회 운영

천안홍대용과학관(관장 이종택)은 오는 5월 31일까지 ‘제40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입상작 특별전시회’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주최·주관한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은 기후 위

기 속 급변하는 날씨를 국민이 직접 참여해 기록하고 공유하는 행사로, 일상 속 신기한 기상기후 현상, 자연재해, 날씨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대상작인 윤

석주 작가의 ‘성벽을 향해 날아드는 불화설’ 작품을 비롯해 사진 22점, 영상 3점 등 총 25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천안홍대용과학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 온기를 느끼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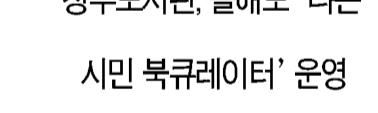
김이태 원장 ‘천안아너소사이어티 44호’ 가입

천안시는 김이태안과의원의 김이태 원장이 1억 원의 성금 약정과 함께 천안 아너 소사이어티 44호(총 남 126호)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천안시청에서 열린 아너 소

사이어티 가입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한 성우종 충남사회복

현회, 천안시는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이달 31일까지 공동집중모금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성금 기부는 전화, 지로, 계좌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347) 또는 천안시복지재단(041-903-4478),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청수도서관, 올해도 ‘나는 시민 북큐레이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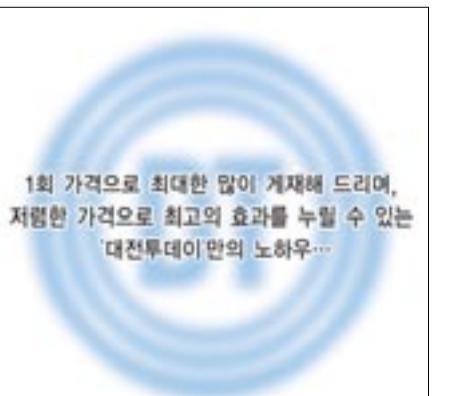
청수도서관(관장 문현주)은 올해도 시민이 직접 북큐레이션에 참여하는 ‘2024 나는 시민 북큐레이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월의 북큐레이션 주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로, 이번 달 시민 북큐레이터 유복선 활동가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메인도서로 선정했다.

북큐레이션 전시에서는 메인도서와 활동가의 손글씨 서평, 연관도서 및 도서별 감상 포인트를 볼 수 있다. 또한, 비치된 노트에 감상후기를 적으며 이를 다른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코너도 조성했다.

‘나는 시민 북큐레이터’에 참여를 원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청수도서관 방문 및 전화(041-521-3725)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한의 노하우…



논산소방서, 동계 수난사고 대비 훈련 실시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를 위해 대전 용운 국제수영장에서 동계 수난사고 대비 자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동절기 수난사고 현장에서의 둘발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동계 잠수 특수성에 따른 훈련에 초점을 두어 진행됐다.



공주소방서장, 관내 취약대상 '회재안전 컨설팅' 추진 류일희 공주소방서장은 지난 15일, 관내 취약대상인 주파인 오케이칼 공장을 방문해 회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겨울철 회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장 방문을 통해 회재 취약 요인 제거 및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자 마련됐다.



태안소방서, 새내기 소방관 인전체험 교육 실시 태안소방서는 지난 15일 신임소방공무원 17명은 태안발전본부 내에 위치한 인전체험관에서 인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전체험교육은 신규 소방공무원 실무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위험에 저지력 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실시되었다.



서천소방서, 외국인 이주여성 대상 찾이키는 소방안전교육 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16일 서천군 가족누리센터를 찾아 외국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화재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교육은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화재 예방법과 대한민국의 소방에 관한 궁금한 점을 물고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대전 사랑의 온도탑, 희망2024 나눔캠페인

시작 47일 만에 100도 조기 달성

대전 희망2024 나눔캠페인'의 나눔도가 100도를 넘어섰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우)는 1일 텐트 캠페인 시작 47일 만에 나눔목표액 66억9천만원을 넘어 67억1천만원을 도금해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대전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62일간을 집중 모금 기간으로 정해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캠페인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대전 시민들의 은정과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더해져 100도 달성을 조기에 이룰 수 있었다.

주요 기업의 참여로는 골프존뉴딘그룹 5억원, 한밭새마을금고 2억2700만원, 한국액컴퍼니(주) 2억1천만원, 계룡건설산업(주) 2억원, 한국철도공사 1억7천만원, (주)금성백화점 1억5천만원,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1억원, 피인건설(주) 5천만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 R&D캠퍼스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울러 캠페인에도 시민들의 따뜻한 미담사례도 줄을 이었다. 암부병 중 사망한 오빠의 유품을 정리하다 모금회를 통해 긴급지원 의료비를 지원받았던 내용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거임차비를 전액 기부하다며 생생한 사무실로 찾아와 주었다. 또한, 장애인이 용인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후 판매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의 사랑을 전하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함께해 주었다.

탕정 갈산리 토지주 '아산 탕정테크노산단 불법승인' 탄원

국정조사·특검 엄벌로 지방정치 정경유착·부정부패 차단 갈망



충남 아산 탕정면 갈산리 67명의 토지주들이 최근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불법승인'을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탄원했던 사실이 알려져 수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7일 토지주를 대표해 입장문 위원장(반대위)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이첩, 처리 결과를 통지도록 조치했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이다.

발단은 지난 2015년 11월께 탕정 용두리 일원 37만969㎡(약 11만2천평) 규모로 산단(1공구) 승인 고시 이후 지난 2016년 4월께 약 4.6km 이격된 탕정 갈산리 일원 31만5천559㎡(농업 진흥지역) 규모의 약 3천500세대 아파트 등 지원단지(2공구)로 편입하면서 비롯됐다.

이들은 "우리 토지주 중 하나인 효성 대기업이 재판을 주도해보겠다고 해 전권을 일임했는데, 효성과 전임 대책위원장이 배신해 고의로 폐쇄하는 재판을 했다"며 "무

효소송은 행정처분에 종합하고 명백한 하자(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효성에서 반드시 무효이며 승인한다고 했던 내용은 취소나 무효사유와 거리가 먼 단순한 위법 사설 관계인 껍데기에 불과한 법을 모르는 토지주들을 기망했던 것"이라고 양육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들은 "무효소송 1·2심, 대법원 패소 후 새로운 부정부패 불법 사설들을 밝혀냈다"며 수사 촉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토지주들은 '지난 2015년 용두리에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득하는 행정처분이 있었기에 당초 산단의 사설관계를 달리하지 않는 범위(경미하거나, 중요한 축소 확장 등)에서만 변경 가능하다'며 "그런데 3년 뒤 그로자 아파트가 필요하다며 용두리와 직선거리로 4.6km 이격된 갈산리 토지(10만평)를 추가 편입, 당시 갈산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이순신대로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면 이순신대로 사업비 610억원을 사업주 시행사의 재원으로 개설해 이산시(충남도)에 공공수수분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서 산단계획 변경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충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회에서 사업자가 이준지구역이 달라 용두리에 갈산리를 편입하는 별도의 새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했다"며 "용두리는 지구지정 시 적법한 주민동의(사용권원 확보 등)와 국토부 심의 및 협의를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와 도는 용두리 산단 개발에 국민혈세 440억원을 들여 산단 진입 도로를 개설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시와 도는 갈산리 확장에 주민동의(토지 사용권원,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와 국토부 산업지정체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충남도 연도별 산단단지 지정계획 고시도 하지 않았다"고 부

이순신대로를 개설해 기부채납으로 심의를 했으나, 아산시는 이를 무시하고 변경 승인 진행과정에서 갑자기 시가 국민혈세 610억원을 들여 이순신대로를 개설했다"며 "이순신대로를 사업 시행자들의 갈산리 사업부지 면적으로 부상 귀속시켜주고, 소유권리를 취득하게 해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어려구니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를 계기로) 산단을 확장 변경해 용두리와 갈산리를 하나의 일단의 토지로 하는 산단으로" 변경 승인 처분해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용두리와 갈산리를 설명 일단의 토지로 수긍한다 해도 지구지정구역이 달라 용두리에 갈산리를 편입하는 별도의 새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했다"며 "용두리는 지구지정 시 적법한 주민동의(사용권원 확보 등)와 국토부 심의 및 협의를 받았고, (이런 과정에서) 시와 도는 용두리 산단 개발에 국민혈세 440억원을 들여 산단 진입 도로를 개설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시와 도는 갈산리 확장에 주민동의(토지 사용권원,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와 국토부 산업지정체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새로운 위법사항 관련 새로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응 소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16명·의료기관 9곳 수사 의뢰

식품의약안전처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20대 환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년 1월 ~2023년 6월) 중 허루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미취침제 종류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 환자가 해당 기간 101개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시술 등으로 수면미취침제를 증복투여 및 다수 투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런 사례를 모아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 오남용심의위원회'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

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등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정」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오는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예산군보건소, 자살 유족의 일상회복 돋는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로 실질적 지원 기대

예산군보건소 정신 건강복지센터는 자살 유족을 위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란 자살 사망 초기부터 자살 유족에게 신속하게 개입해 유족이 지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구체적 지원 내용으로는 ▲애도 전문 상담 ▲법률 및 행정 처리 ▲사후 행정 처리비 ▲일시 주거비 ▲특수청소비 등이 있다.

특히 자살 유족은 일반 사망 유족과 달리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에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을 통해 자살 유족의 2차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지향점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유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벗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증 발급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공공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구축·확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사업에는 160억8천만 원을 배정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한해 모바일로 발급한다.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원을 배정해 홈택스(국세청), 복지로(복지부), 대국민 나이스(교육부) 등 30여개 주요 웹사이트에 확산해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여러

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 등 밸류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2025), 장애인등록증(2026)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민·관 통합 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확산해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설 시기 관리 인력풀을 25일부터 운영한다.

사후 관리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주택에 대해 소화기를 추가로 보급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불량·오작동 발생 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대전 소방본부는 2019년부터 5년간 추진해 온 대전시 주택 25만 여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주택용 소방

설 관리 인력풀을 위한 주택용 소방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 관리 인력풀 운영



설 시기 관리 인력풀을 25일부터 운영한다. 사후 관리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주택에 대해 소화기를 추가로 보급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불량·오작동 발생 시 교체해 주는 사업이다. 대전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대시민 소방 안전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공개

미래자동차, 생명건강(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차세대반도체 등

미래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13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한 우수 사례가 공개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월 17~19일 네트워크(인천)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성과 발표회(포럼)'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분야별 대학 연합체를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분산된 지원(교원,

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분야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개 첨단분야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3개 연합체 소속 53개 대학의 교직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학문간 융·복합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유연한 학사제도 확산 등 2023년 사업성과와 이를 통한 대학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기조 강연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

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과 교수 발표로 구성된다.

2022년~2023년 '학생 지원단(COSS 서포터스)'으로 활동한 정예진 학생(서울시립대)은 재학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활동 사례를 소개한다.

에너지신산업 연합체 운영에 참여한 송인영 교수(고려대)는 미래 사회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변화와 이와 관련된 사업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율려, 기조 강연 이후에는 13개 연합체가 함께 모여 연합체별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성과를 발전·확산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심민철 인재정책 기획관은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통해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협업,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복합 및 신입계 협력 등 대학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첨단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혁신적인 대학 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보령교육지원청, 16일부터 2주 간 소속 직원 대상

'교육장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개최



은 "소통의 날을 통해 평소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고, 함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며 "제게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해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백정현 교육장은 "1.1자 인사발령으로 구성원들이 많이 바뀌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통의 날'을 통해 직원들의 얼굴을 익히고 대화해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신뢰와 존중이 기반이 되는 우리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의 조직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령교육지원청은 글년도 ▲ 기관장과의 소통의 날 ▲ 정월대보름 화합한마당 등 수평적인 조직 문화 만들기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소통의 날에 참석한 한 주무관



청양 청남초, 겨울방학캠프 운영 청남초등학교(교장 윤여홍)는 겨울방학을 맞아 16일, 겨울방학 캠프 개강식을 실시했다. 학교장은 개강식에서 겨울방학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강사 소개, 일정 안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방역 수칙 준수 등 안전한 캠프를 위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학생들은 각 교실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했다.

아산시, 위촉직 위원의 연임 의사 확인… 분과별 결원 확정

'제2기 참여자치위원회' 시민위원 추가 모집



아산시가 제2기 참여자치위원회 시민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지난해 2월 7일 출범한 제1기 참여자치위원회는 지난 12월 활동공유회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의사를 확인하여 분과별 결원을 확정했다.

참여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문화관광분과와 교육분과는 결원 미발생으로 추가 모집하지 않는다.

참여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시정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해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이 아산시로 된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아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네이버폼(<https://naverform/F7yj3VjM>)을 활용하면 된다. 1월 말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고 2월 중 제2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가 출범한다.

아산=리량주기자

국립산림치유원, 신입생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일환

청소년 위한 겨울맞이 산림복지서비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현) 국립산림치유원(이하 치유원)은 지난 9월 경북항공고등학교 2024학년 예비 1학년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신입생 힐링캠프(1박2일)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경북항공고 측의 학교 생활 안내를 비롯해 치유원에서 진행되는 ▲수(水)치유 체험 ▲힐링 카프라 ▲밸런스 태라파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다.

치유원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청소년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나눔의 숲' 캠프는 프로그램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해 주며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돌봄서비스센터 등의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생들은 선서를 통해 학적을 준수하고 성실히 학업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년간 원생들을 지도할 교사를 한 분 한 분 소개하며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를 격려하였다.

국립산림치유원 원영록 원장은 "겨울방학을 맞이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주위에 웅크린 몸을 깨우기 위해 즐길거리가 가득한 겨울 숲으로 청소년들을 초대하겠다"며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이 숲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신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영…학교의 교육적 역할 집중 기여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024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생화해중재원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 1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 피·기해 학생 간 관계 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제로센터에 2명 내외로 배치되며,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조사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퇴직 경찰, 상담 및 청소년 전문

가가 선발·위촉되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담 조사관의 사안 조사 결과,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안이거나 피해 학생 측의 학교장 자체 해결 미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 회의를 신설하여 운영된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은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담 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고 학교가 교육적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당진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징검다리학교연계학교인 당진중학교에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겨울방학 성장캠프를 지난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학 기간 학생들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방학 생활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성장캠프는 8일부터 12일까지 ▲미술심리상담 ▲독후활동 ▲행복한 식탁요리 체험을, 15일부터 19일까지 ▲관계성장

보드게임 ▲자존감 향상을 위한 나만의 굿즈 만들기를 독서&감상 톡톡(TALK-TALK) 허그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당진중학교 임광빈 교장은 "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따뜻한 느낌이 든다."라며 "이번 성장캠프를 통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더 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내면이 한결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희숙 교육장은 "결식과 학습결손 등 방임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방학 기간에 교육복지지원센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금산교육지원청, 국악기 연주 실습과정…관내 유·초·중·고 교원 대상

예술융합수업 꽃피우기(국악강습) 직무연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법연)은 1월 15일 금산여자중학교에서 '예술융합수업 꽃피우기(국악강습) 직무연수'를 시작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국악기 연주 실습 과정으로 금산 관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진로 교육을 위한 특강과 학생들의 탐구능력 신장을 위해 8개월간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하는 탐구활동발표대회도 준비중이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고덕희) 원장은 "창의융합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뜻깊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오늘 마주한 모든 원생들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배양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수에 참여한 진산중학교 문준찬 교사는 "음악 교과에서 국악 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정작 지도 교사가 국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부족했다"라면서 "이번 직무연수가 학교 현장에서 국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법연 교육장은 "교원들이 다양한 전통악기를 경험하고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여 학생들이 국악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것을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학교 현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교원의 예술융합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금산=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 이음갤러리의 여섯 번째 전시

부석고 미술교사 박유진의 개인전



레이즈를 이용한 작업은 배경 부분의 거품 문양과 함께 반추상적인 이 세상의 만물들을 화폭에 담았다고 밝혔다.

전시회 제목인 '天然'('천연')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라는 뜻으로, 이는 도자기 물감과 결정유를 이용해서 페인팅을 한 뒤 가미에서 1250도로 소성되는 작품의 상태와 같이 정제된 느낌의 정방형 도자기에서는 온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박유진 작가 작품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충청남도교육청 이음 갤러리에서 2024년 3월 8일까지 전시되며, 교육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충남남부평생교육원, 조직문화 개선·청렴문화 확산 등 '노력'

청렴정책 추진실적 도내 1위 달성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 교육원(원장 신재민)은 충청남도교육청 주관 '2023년 청렴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충청남도 내 814개 기관(학교) 중 1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부평생교육원은 ▲조직문화 개선 △청렴 문화 확산 ▲청렴 인식 개선 ▲함께하는 청렴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5개 분야와 ▲청렴 이벤트 ▲청렴 교육 홍보 공모전 입상 ▲청렴 소통 강사 활용 ▲찾아가는 청렴 교육·상담 실적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

이정복기자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알릴 새 얼굴 발탁

道, 16일 서천 출신 트로트 가수 박민수 씨 홍보대사 위촉

충남 서천군 출신 트로트 가수 박민수 씨가 충남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발탁됐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트로트 가수 박민수 씨를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

박 씨는 불타는 트로트맨, 불타는 장미단, 장미꽃 필 무렵 등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고향인 서천군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등 각별한 고향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앞으로 박 씨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대사로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관심이 기부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22년 12월 충

남 고향사랑 자문단을 구성하고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출신 ▲배우 강부자(논산) ▲코미디언 남희석(보령) ▲배우 박시후(부여) ▲가수 배일호(논산) ▲코미디언 안소미(보령) ▲축구 선수 염기훈(논산) ▲배우 정준호(예산) ▲가수 한여름(홍성) 등 8명을 위촉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배우 강부자·정희제 씨, 코미디언 안

소미 씨, 시인 나태주 씨, 소리꾼 장사의 씨 등도 출신이거나 도내 거주 중인 유명인사가 참여한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캠페인'도 펼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촬영에도 임한 박 씨는 "나고

자란 충남을 대표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얼굴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면서 "전국

에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 앞

장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부지사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

정으로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충

남 고향사랑기부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제정 보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자체단체가 시행 중으로,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단례품(기부금의 30%)을 제공하며,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된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 사랑이 (e)'을 <https://ilovegohyang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오프라인 기부는 가까운 농협에서 가능하다.

김정환기자

등록면허세 정기분 4억 6천만 원 부과

서산시, 3만 1254건 등록면허세 부과·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시는 한눈에 보기 어려운 노약자를 배려해 큰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신=김정한기자



당진시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배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법인에 1000부 제작 배부

당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인이 알아 두면 유용한 조세 관련 정보가 담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1,000부를 제작해 배부에 나섰다.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에는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가, 뒷면에는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지방세 관련 궁금증 및 해당 월에 해당하는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담겼다.

배부 대상은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최근 3년간 지방

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매년 3건 이상, 1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납세자 중 1,000개 법인을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선정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익숙하지 않은 지방세 관련 제도들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감으로써 납세자의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 권리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2024 농업인 실용 교육 실시

29일부터 2월 2일까지 10개 읍면 농업인 200여 명 대상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개 읍면 농업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1년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양군 공동브랜드 '짚감미루'의 품목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활성화 및 면거리 순환 종합계획(푸드 플랜) 참여 농가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벼, 고추, 구기자 등 주요 품목에 대한 핵심 영농 기술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사들의 강의와 선도농업인의 사례 발표를 통해 농업인들의 현장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일정은 ▲1월 29일 청양읍, 대치면 ▲1월 30일 정산면, 목면 ▲1월 31일 청남면, 장평면 ▲2월 1일 운곡면, 남양면 ▲2월 2일 화성면, 비봉면 예정이다.

청양=정상범기자

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홍성군이 농업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부부), 자녀, 부모), 장애인(1~3급), 산불피해 주민 등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 및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내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 재의뢰 시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90% ~ 50%까지 감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의 100%,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측량 의뢰 시 제출하면 된다.

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농업인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4필지에 대해 5백만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86필지에 대해 1천 2백만원, 측량 재의뢰 25필지에 대해 1천 1백만원 감면 등 총 5천 2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복호구 민원지적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송악저수지 상류 수변 데크산책로 조성 완료



아산시가 지난해 12월 송악면 동화리에 위치한 송악저수지 수변 데크와 목교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고용노

동부와 지자체, 대학이 공동 예산을 투입해 재학생·졸업생 및 지역 청년의 진로·취업지원, 전문상담, 청년정책 지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남대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

지 대학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6년 연

이에 아산시는 2021년 송악저수지 궁평리 데크산책로를 조성하고, 이번에 동화리 수변 데크산책로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두 차례의 데크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단절 구간이 일부 해소되어 수려한 송악저수지 경관을 오랫동안 감상하며 걸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수변 데크산책로 조성 사업 마지막 구간을 추가로 추진하여 송악저수지를 중심으로 단절 구간 없이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병주 산림과장은 "송악저수지 수변

데크산책로 마지막 사업까지 잘 마무리 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산책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한은 대전세종충남본부 관내 중소기업에 6676억 원 상당 '특별지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6676억 원 규모의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통화긴축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

제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

지 총 6개월간 관할지역 소재 은행이 대

전·세종·충남지역 소재 혼동 중소기

업에 지원한 운전자금 대출이다.

지원방식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은행에 대출취급실적의 50% 또는 75% 혼동액을 저금리로 공급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이 대출금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 실적 기준 10억 원이다.

송두석 본부장은 "이번 한시 조치를 통

해 긴축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

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지난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

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농업인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4필지에 대해 5백만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86필지에 대해 1천 2백만원,

측량 재의뢰 25필지에 대해 1천 1백만원

원 감면 등 총 5천 2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복호구 민원지적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적측량 수수료 감

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지난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

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농업인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44필지에 대해 5백만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86필지에 대해 1천 2백만원,

측량 재의뢰 25필지에 대해 1천 1백만원

원 감면 등 총 5천 2백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복호구 민원지적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적측량 수수료 감

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정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최원철 공주시장= 17일 오후 2시 공주농업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김동일 보령시장 = 17일 오후 2시 김동일 보령시장은 시장실에서 이웃사랑 성금 전달식 참석.

간부회의



이완섭 서산시장= 17일 오전 8시 40분 서산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 참석, 오후 2시 팔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팔봉면 새해 시민과 대화 참석.

2024 군민과의 대화 주재



박범인 금산군수= 17일 오후 2시 금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2024년 군민과의 대화 주재.

생활속 도로명주소 정착 홍보 박차

금산군은 길 찾기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 까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 만인산APC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진 중인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내 및 상담 등에 나섰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됐으며 꼭 8자로 이상 '대로', 꼭 1~7자로 '로', '로'보다 짧은 '길'로 불린다. 또 차량 방향의 원쪽 건물을 흘수, 오른쪽은 짚수 번호가 표기된다.

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041-750-2342)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공립행복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보령시는 16일 시장실에서 공립행복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위탁체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복어린이집에서 9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해 온 정현숙씨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위·수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이다.

공립행복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교육을 위한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교사, 특수교사, 치료사가 근무하며, 기본 보육과정을 중심으로 아이의 발달 수준을 기초하여 설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치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장애영유아와 부모를 위해 특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운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공립 장애전문어린이집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차별 없는 교육으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금산군 올해 녹색도시 만들기 전략

120억 원 투입, 녹색쉼터 공원로네상스 구현 등 5개 분야 24개 사업 추진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 관리에는 47억 원이 투입된다. 자연으로 숨 쉬는 도시환경을 개선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추부면 주요 도로변과 대전통영 고속도로변에 3㏊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고 금산산업고와 진성하이텍 고등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한다.

또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녹색도시 우수사례 기후대응 도시숲 분야 전국 최우수 분야를 수상하기도 했다.

주민의 생태휴식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원 조성사업비로는 16억 원을 투입해 이슬공원 정원화 및 부리면, 나이면 주민 친화형 정원 조성을 나서 이 공간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어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병해충 없는 산림 육성에는 4억 원이 투자된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생활권 및 산림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소나무에 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 선충병과 미국선녀벌레 등에 대한 적극 방제를 추진한다.

산림유전자원 보존에 3억 원이 투입된다. 오랜 기간 주민과 역사 함께하고 토속문화를 형성해 온 중심 매개체인 보호수와 항토숲 관리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림 유산을 보존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자연과 삶 조화로운 녹색도시 '금산'으로의 전환으로 녹색공간을 확충해 군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금산군은 올해 군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만들기에 120억 원을 투입한다. 추진 사업은 일상 속 녹색쉼터 공원로네상스 구현에 50억 원이 투자된다. 균형 있는 공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남산공원, 이슬공원에 접근성을 향상하고 공원 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또한 비호산 일대 토지를 매입해 비호산공원 확대 발전 토대를 마련한 후 발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등

일상 속 녹색쉼터 공원로네상스 구현에 50억 원이 투자된다. 균형 있는 공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남산공원, 이슬공원에 접근성을 향상하고 공원 시설을 대폭 개선한다.

또한 비호산 일대 토지를 매입해 비호산공원 확대 발전 토대를 마련한 후 발전 기본계획 수립하는 등

서산시, 어르신 두뇌 건강 쟁쟁 치매 예방

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쉐터프로그램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가족 교실 등 대상자에 따라 구성됐다.

치매예방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7일부터 기수당 매주수요일 10회로 구성돼 총 4기로 운영된다.

인지강화교실은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19일부터 기수당 매주금요일 13회로 구성돼 총 3기로 운영된다.

쉼터 프로그램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30일부터 기수당 매주화, 목요일 24회로 구성돼 총 3기로 운영된다.

가족 교실은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각 기수당 매주요일을 정해 11회로 구성되며 총 3기로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인지능

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돼 기억력 강화, 인지 능력 향상 과정 등을 작업치료, 광예, 음악 등 참여자들의 능력과 관심에 맞는 활동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가족 교실은 치매 증상별 돌봄 방법 안내 등 돌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과 가족의 자기돌봄 방법 등 심리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운영은 서산시 치매안심센터(☎041-661-8194)로 연락하면 된다.

이원섭 서산시장은 "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노인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 =김정한기자



충남 서산시가 치매 예방 및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12월까지 2024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실 ▲인지저하자 대상 인지강화교

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쉐터프

로그램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가

족 교실 등 대상자에 따라 구성됐

다.

충남 서산시가 치매 예방 및 치

매 악화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12

월까지 2024년 치매안심센터 프

로그램을 서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

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

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인지강화

교실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가

족 교실 등 대상자에 따라 구성됐

다.

충남 서산시가 치매 예방 및 치

매 악화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12

월까지 2024년 치매안심센터 프

로그램을 서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

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

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인지강화

교실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가

족 교실 등 대상자에 따라 구성됐

다.

충남 서산시가 치매 예방 및 치

매 악화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12

월까지 2024년 치매안심센터 프

로그램을 서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

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

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인지강화

교실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가

족 교실 등 대상자에 따라 구성됐

다.

충남 서산시가 치매 예방 및 치

매 악화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12

월까지 2024년 치매안심센터 프

로그램을 서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

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

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인지강화

교실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가

족 교실 등 대상자에 따라 구성됐

다.

충남 서산시가 치매 예방 및 치

매 악화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12

월까지 2024년 치매안심센터 프

로그램을 서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

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

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인지강화

교실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가

족 교실 등 대상자에 따라 구성됐

다.

충남 서산시가 치매 예방 및 치

매 악화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12

월까지 2024년 치매안심센터 프

로그램을 서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

터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예방교

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인지강화

교실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가

족 교실 등 대상자에 따라 구성됐

다.

충남 서산시가 치매 예방 및 치

매 악화 방지를 위해 17일부터 12

월까지 2024년 치매안심센터 프

로그램을 서산시보건소 치매안심센

한국수자원공사, 물 공급 변동성 대비 AI 운영시스템 도입한 것 높게 평가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등대 어워드 수상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현지 시각 1월 1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다보스포럼)) '글로벌 등대 어워드 (Global Lighthouse Network Award)'를 수상했다.

'글로벌 등대 (Global Lighthouse Network)'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위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 앤드 커퍼니'와 2018년 공동 설립한 아너셔티브로, 매년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그간 존슨 앤드 존슨 (Johnson&Johnson), 지멘스(SIEMENS) 등 해외 유명기업이 주로 선정되었고 국내 선정 기업은 포스코 LS전선, LG전자 3개뿐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화성AI정수장 시례로 2023년 글로벌 등대로 선정되면서 세계 최초 물기업이 선정되는 기념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은 화성AI정수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변동성에 대비해 AI 운영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기후변화 시대에 들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수돗물 서비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운영 효율은 높이고 인적 오류는 줄이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화성AI정수장에 AI 기반 운영체계 도입을 시도하여 '22년 4월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화성AI정수장은 빅데이터 기반 자율 운영, 에너지관리, 설비상태의 실시간 감시·분석을 통한 이상장치 자율진단, 지능형 영상감시 등이 융합된 차세대 기술을 갖췄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24년까지 전국 42개 광역정수장에 확대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 기술혁신을 통해 AI정수장 기술을 발전시켜 ISO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유관 강소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윤석대 사장은 "이번 글로벌 등대 선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원전 자율 운영을 목표로 AI정수장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불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한밭대, 2023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우수' 대학 선정

거점형 사업 2년차 수행·재학생과 지역청년에 양질의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 대학일자리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형) 사업은 대학 내에서 청년특화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진로탐색 및 전문상담 지원, 일자리매칭 등을 종합 지원하고, 대학 밖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기능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타대학 학생 및 인근지역 청년에게까지 청년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한밭대는 그동안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경력개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업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일자리 발굴·매칭 강화 등 맞춤형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23년에는 '2023 지속가능 인재양성 H-AOE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일경협 프로그램', '지역으로 찾아가는 대학일자리 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청년의 취

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대전시 D-유니콘 기업 설명회', '지역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 지역기업과의 고용협업을 활성화하여 거점형 대학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국립한밭대 박정호 대학일자리본부장은 "학생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로 및 취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청양군 후계농업경영인회, 정기 대의원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 기탁

청양군 후계농업경영인회(회장 김영래)는 지난 15일, 대의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김영래 회장은 본 회의에 앞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청양군에 전달하면서 "축운 겨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이 전달되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을

비롯하여 2024년도 주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당면한 현안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회원 간 농업 경영에 관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래 회장은 "경제 악화 및 농업시장 위축 등 갈수록 어려움이 많지만, 회원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고 나아가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영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금년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농업경영인이 비상하고 풍농의 기쁨을 만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농업경영인이 행복한 청양군 농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양군 정상범기자

제3차 인문사회연구소 네트워킹 심포지엄에서 연구성과 발표

건양대 웨딩융합연구소 '한국 웨이징 모델 개발 및 사회 확산 위한 융합연구'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웨딩융합연구소(소장 김광환)는 (재)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12일에 열린 2024 '인문사회연구소 성과확산센터 제3차 네트워킹 심포지엄'에서 인문사회연구소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전 생애 발달 주기에 적합한 웨이징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교육 체계를 확산하고자 한다"며 "고령화 사회 변화와 정착을 고려한 장기적인 교육 목표 수립으로 웨이징

교육 기반을 체계화했으며 웨이징 교육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교육 확산, 문화 정착, 전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웨딩융합연구소장 김광환 교수(건양대 병원경영학과)는 "이번 성과발표와 더불어 학문적 교류로 연구 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웨이징 교육대상 다양화 및 컨텐츠 다각화로 제4차 네트워킹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으나 많은 응원 바란다"라고 밝혔다.

연구성과 발표회 참석과 관련된 사항은 웨딩융합연구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예방 위한 과원 관리 교육 실시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5일, 관내 사과·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과원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가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화상병 약제 적기 살포, 전정 작업 시 주의 사항 등으로, 과수화상병을 사전에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복숭아 등 장미과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 병으로 겨울철 오래된 과양의 주변에서 월동한 병원균이 개화기에 곤충이나 빗물을 통해 꽃의 암술대로 전파되어 급속도로 증식하는 병으로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과원 관리 교육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적기 살포 방법과 주의 사항을 실천해 우리 지역 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2023 연차성과 평가 최고 등급 '우수'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

수' 평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목원대는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3년 연속 운영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목원대는 지난해 ▲진로로드맵에 기반한 취업지원 체계화 ▲경력개발시스템 기반 진로취업·심리 원스톱 상담 서비스 제공 ▲진로·취업교과 내실화 ▲자체평가 및 학점 체계에 의한 특화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졸업생 및 지역청년 취업서비스 제공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양적 성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선기자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연차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

수' 평가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목원대는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되어 3년 연속 운영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목원대는 지난해 ▲진로로드맵에 기반한

특히 문화예술중점대학의 강점을 특화한 '문화예술중점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해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용호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앞으로도 목원대는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지역 미취업 청년의 성공 취업을 지원할 수 있게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청년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충남교육청, 초·중 학생 114명 대상…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겨울방학 예술캠프' 운영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춘천 소재의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초·중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겨울방학 예술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겨울방학 예술캠프'는 충남 15개 시군의 농어촌 학교 140개교가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 문화 예술교育 여건 개선을 위해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예술 경험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예술캠프에서 학생들은 마술, K-pop 등 체험형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겨울 스포츠인 스キー 강습 등 다양한 여가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보다 많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화 예술교育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에도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사전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에는 농어촌 학교 166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여섯 번째 개소

'KR스타트업라운지' 순천역 오픈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본부장 유성기)는 16일 순천역 2층에 중소·창업·벤처기업의 업무지원시설인 'KR스타트업라운지'를 여섯 번째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KR스타트업라운지'는 철도공단이 역사 내 유류공간을 활용해 중소·창업·벤처기업인을 위해 회의 및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생활SOC 사업으로, 현재 전국 5개 역사(광역역, 대전역, 벡스코역, 오송역, 동탄역)에서 운영 중이다.

순천역 KR스타트업라운지는 80㎡ 규모로 대회의실(최대 12명 수용) 1개, 소회의실(최대 8명 수용) 1개, 공용공간·코워킹존(15석)으로 구성됐다. KR스타트업라운지의 이용은 청업진흥원의 청업공간플랫폼(www.k-startupgo.kr)에 가입한 자라면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유성기 본부장은 "호남지역의 중소·창업·벤처기업인과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철도시설의 유류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도시침수 대응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아산시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온양지역의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대상은 온양원도심 지역에 새롭게 추진하는 3개 사업(도종 용화, 온양2, 5동, 온천동)으로 법정 절차와 무관하게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시행됐다.



국립공주대학교,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학술교류협의 공주 대학교(총장 임경호)는 12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애리조나 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교수 및 학생교류, 공동연구 등 글로벌 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대교 대학간 교류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학교 관계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박희조 동구청장, 자양동 주민들 만나 동구 르네상스 비전 설명
 박희조 동구청장은 새해맞이 구민과의 토크콘서트 일정 첫날인 15일 자양동을 방문해 민선 8기 동구의 비전과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충남대 김수정 교수, 김태연 교수, 발전기금 기부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수정 교수와 사회복지학과 김태연 교수는 16일 오후 2시 30분, 이진숙 총장을 방문해 충남대 여성전당연구소 장학기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 새해맞이 예당호 수중 환경 정화활동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예산군지회(지회장 신보선)는 충남도지부와 시군지회장 및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산군예당호 일대에서 수중정화 활동을 펼쳤다.



전몰군경유족회 금산군지회, 이웃사랑 성금 150만 원 전달
 전몰군경유족회 금산군지회(회장 장갑용)는 지난 15일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 참여하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남대전 새마을금고 신성동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전 중구 신성동(동장 정혜은)은 16일 남대전새마을금고(이사장 권선주)에서 관내 저소득 가정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취약계층을 위한 온기 전달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문은수)는 지난 15일, 천안시에서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으로부터 2024년 적십자 특별회비 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김세용 지역대표, 충남적십자사 황종현 부회장, 적십자봉사회 천안지구협의회 김미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완섭 시장, 대산3 일반산업단지 확장 이주대책 등 지역 현안 관련 대화 이어져

'첫 새해 시민과 대화' 대산읍 시작

이완섭 서산시장이 대산읍을 시작으로 새해 시민과 대화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이 시장은 15일 대산 커뮤니티 센터에서 대산읍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과 대화를 실시했다.

이번 대화는 실질적인 대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개회 및 간단한自我 소개 후 바로 경제·산업, 관광, 교통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오선 진행상황과 대산을 출퇴근 교통정체 개선 방안에 대해 이 시장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기오선을 착공하고 안산 공원 옆 도시계획 도로를 기오선 준공 시점에 맞추어 개설해 교통 체증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감 ứng신호 연계를 통해 출퇴근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해 운전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라며 “신호체계도 야간에는 접선신호로 바꿔 교통체증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교통체증 해소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대산지역 택지개발과 관련해 “지난해 신정된 일자리와 연계한 근로임대아파트 공모사업에 대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며 “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대산지역 택지 개발, 인산공원 주민에 따른 공원화, 대산항 국제크루즈선 운항, 삼길포 우량축제 주제 타워 조성, 김태작업장비 지원, 농로 포장 공사, 대산을 자녀취업 문제 등에 대한 건의 사항들이 이어졌다.

서산=김정한기자

이번 대화는 읍면동별 주요 건의 사항의 현장 모습을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해 현장감과 소통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실질적인 대화시간을 대폭 늘려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8만 시민들과 함께 극세체도의 자세로 도약하는 서산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며 “대산읍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추후 시민과 대화 일정은 ▲16일 인지면(오전), 부석면(오후) ▲17일 팔봉면(오후) ▲18일 지곡면(오전), 성연면(오후) ▲19일 음암면(오전) ▲22일 운산면(오후) ▲23일 해미면(오전), 고북면(오후) ▲24일 부춘동(오전), 동문1동(오후) ▲25일 동문2동(오전), 수석동(오후) ▲26일 석남동(오전) 순이다.

서산=김정한기자

대전대 남민우 교수
 디지털 교수학습 혁신
 유공 교육부장관상 표창



대전 대학교(총장 남상호) 대학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남

민우 교수는 ‘대학 디지털 교수학습 혁신과 학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남 교수는 대학 원격교육 전문가로서 축적된 우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권역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사업추진위원회 활동과 함께 대학 원격교육 질 제고 R&D, 대학 원격교육 활성화 특강 및 컨설팅 제공, 대학 원격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 등 대학 디지털 교수학습 혁신과 대학 원격 교육 활성화, 공유·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남민우 교수학습센터장은 “대학에서의 원격교育 확산과 성장을 위해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대학 디지털 교수학습의 지속적 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아산시, 정신운동선양회 7년째 온정의 손길 나눠



남서울대, 중국 청도예술고 'K-뷰티반' 일행

중국 청도예술고 'K-뷰티 단기연수'

남서울대학교(총장 윤승용)는 중국 청도예술고 'K-뷰티반' 일행 44명이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K-뷰티 단기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인술자 4명과 중국 청도예술고 재학생 40명이다.

남서울대는 작년 4월 중국 청도예술고와 'K-뷰티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중국의 교육 당국이 정규 고등학교 교육 과정으로 승인한 최초 사례다.

남서울대는 이번 단기연수를 위해 한국의 'K-뷰티'를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피부관리, 화장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남서울대의 첨단 융복합시설인 미래 플랫폼체험관과 VR·AR쇼룸을 체험한다. 아울러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등 서울의 관광명소도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청도예술고 쌈사오빈 주임은 “K-뷰티 분야의 인재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의 교육과정을 본보기로 삼아 중국 뷰티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며 “청도예술고가 중국의 뷰티교육 분야에서 으뜸이 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서울대 대외국제교류처 이상빈 총장은 “이번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을 성사시킨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어렵게 방문한 것이라면 계획한 소기의 성과를 잘 거두고 향후 교류협력의 발판으로 삼아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충남아산정신운동선양회(회장 곽노항) 회장은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7년째 지속해오고 있는데 올해에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며 “어려운 시기 에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산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경귀 시장은 “사회단체 지역원로분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회원분들이 모아주신 성금은 그 어떤 기부보다 값지고 소중한 일”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충남아산정신운동선양회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취약 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아산정신운동선양회는 충남의 5대 정신(중효, 청렴, 선비, 예의, 도전)을 홍보하고 인성 교육을 실천하는 단체로, 1998년 12월에 발족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성 향양과 효 실천을 위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중기중앙회 '2024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김영환 충북지사, 전형식 충남부지사, 장호종 대전부시장, 김하균 세종부시장 등 350여명 참석



는 힘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한다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키워 규제 혁신을 실천한다면,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가 ‘경제’를 밀어 주고, 기업인들은 미래세대와 함께 더 넓어진 경제 영토에서 대한 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갑진년 중소기업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타복 행사를 갖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대한민국 경제의 도약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와 전형식 충남부지사, 장호종 대전부시장, 김하균 세종부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격려사와 신년복담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병배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청주 메리다웨딩컨벤션 마르시아홀에서 지자체, 국회, 중소기업계 등 충청지역 각계 주요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매년 권역별로 개최돼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올해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23일), 영남권(25일), 경기권(30일)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전형식 충청남도 정부부지



공주교육지원청, 선수들 격려하고 훈련 상황 점검

관내 배드민턴부 동계 합동 훈련 격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류동훈)은 16일, 공주신월초등학교와 공주여자중학교 배드민턴부, 공주대 체육학과 학생들이 합동으로 동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공주교육대학 교 현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배드민턴부 동계 훈련은

초·중 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연계해 공주신월초, 공주여자중, 공주대 학생들이 공주대학 문화체육관에서 실시한 합동 훈련으로 체력 증진과 배드민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선수후배 간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이 되었다.

공주=정상범기자



고안나 시인의 '詩냇물'

천지에서

내 잔을 채웁니다

아무도 물래
청자빛 하늘 한 귀퉁이
이름 없는 구름 한 조각 떠내네
다름지 못한 민 잔 채웠습니다

주인 알 수 없듯
형체도 알 수 없는 서려운 바람소리
심장에 박히는 온장도
그런 밤이면
눈썹 달마주보며 취합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리 天地間
눈 시린 햇살
길 잃은 시간들, 그들이

뒤흔들고 싶은 함성
웅크린 채 찰랑찰랑
긴 배 제의 기다리는
나는 한 잔 술입니다

▶ 시작 노트

백번을 올라가야 두 번을 볼 수 있다는 백두산 천지, 북한 양강도 삼지연 백두산 정상 분화구에 있는 칼데라화구호이다. 대한민국 주소 기준으로는 함경남도 혜산군 보천면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 것이라는 강한 자부심에 뿌듯했었다. 그 눈시린 청자빛 물속으로 빠져들고 싶었던 충동은 나만 그랬을까? 몇 번이고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물빛...



백성일 시인의 '바람이었다'

겨울비

주룩주룩 청승스럽다

마을에 초상(初廬)나면
아랫마을 용철이 생일날
코가 뺨처럼 물들도록 취하면
두만강 푸른 물에, 한가락 뿐는다

손자 놈 스키장 못가
가슴 타들어가고
어미는 엷은 미소 머금고 있다

구장액 울타리
동백나무도 불청객에 속아
꽃망울 터뜨리는 것 잊고
꿈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불청객 가고 나면 바빠지겠다

▶ 시작 노트

겨울은 겨울다워야 한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상가집에서 대중가요 노래하는 것이나, 절기도 시절에 맞지 않고 모든 것들이 어긋나게 돌아가니 거짓이 가득하다. 겨울비 사라지고 나면 동백이 꽃망울 터뜨리기 바쁘겠다.

지방시대,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다

전국 첫 번째,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민 의견 청취

세종시에서 지방시대 실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세종시(이하 세종시)는 16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청 여민실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를 개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수립된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시는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주요 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및 교육발전특구·기획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비롯한 계획 이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의 올해 우선 과제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

동/1.4.)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힙 활성화, 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우 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시는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주요 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및 교육발전특구·기획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비롯한 계획 이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효성 있는 과제 추진과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축으로 대학·기업·언론·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

하는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총청권 합동추진단은 총청권 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산업·행정·교통인프라·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중장기 초광역권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에는 육동일 시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세종시 역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자치분권·경제산업·교육·대학 혁신·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세종시가 지방시대 겨울로 세종시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시는 세종시 지방시대계획 주요 내용 및 2024년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및 교육발전특구·기획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비롯한 계획 이행에 있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효성 있는 과제 추진과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축으로 대학·기업·언론·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

김태선 기자

예산군농기센터, 국화 분재 교육생 19일까지 모집

체계적인 분재 교육부터 작품전시까지 열정 있는 회원 환영



예산군 농업 기술 센터는 국화 분재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교육생을 1월 19일까지 모집한다.

국화 분재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3회 기술 센터 국화 재배 온실에서 진행되며, 국화 분재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국화 재배 기초부터 유형 별 재배 관리법 까지 국화 분재 재배 전 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교育생은 기술 센터 품목별 연구 모임인 국화 분재 연구회 회원으로 등록되며, 10월 말에 열리는 제8회 예산 장터 삼국 축제에서 한 해 동안 교육을 통해 공들여 가꾼 분재 작품

을 전시하게 된다.

또한 교육 일정으로 분재 쿠, 임국, 현애 등 시기에 따른 국화 작품 교육과 선진지 현장 견학이 연계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다양한 작품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농업 기술 센터는 국화 분재 교육 신청자를 선착순 30명 선별할 계획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 누구나 농업기술센터 경제 작물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화 분재 연구회는 지난 2015년에 조직돼 3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매년 국화 교육을 통해 제작된 우수 작품을 삼국 축제장에 전시해오고 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사설

늘봄학교·교권보호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교육현장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이 완화된다. 현재 시법 운영 중인 초등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저녁 8시까지 아동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세계 최저 출산율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일과 육아의 양립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학교 시간이 짧아 돌봄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가족·친지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교육기관을 전전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돌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교육 분야 학교 국정 과제로 방과후 교육활동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래서 전국 확대 시점을 한 학기 앞당긴 것이다. 문제는 늘봄학교 운영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이다.

늘봄학교 업무가 현장 교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늘봄학교 업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교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교권보호법이 본격 적용되는 등 교권 보호가 확대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도를 넘은 상황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민원을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점 너무나 잘한 조치다.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학부모·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를 단호히 엄단하여 교사 인권 보호를 위해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

최근 학폭 기해 연령이 초등 저학년 단계까지 접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학폭의 피해자가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개정된 학폭법이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되어 피해 학생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해 학생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안 처리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환경 개선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기를 바란다.

文정부 'GP 불능화' 발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말만 믿고 비무장지대 내 북측 GP가 파괴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최근 북측 일부 GP 지하 시설의 재가동 징후를 포착했고, 검증에 참여한 군 관계자는 부실 검증 증언이 나왔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남북은 2018년 9·19 합의에 따라 군사 분야 선 남북 1km 반경 내 11개의 GP를 철거했다. 이후 양측 GP 검증단이 이를 확인했는데, 우리 측 GP 77명은 북측 브리핑만 청취한 채 1시간 30여 분 만에 돌아왔다고 한다. 북측 GP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우리 군은 '불능화 달성을' 공식 발표했다. 우리 군의 GP는 주로 지상 콘크리트 형태여서 폭파하면 육안으로 확인되지만, 북한은 대부분 지하 시설이라 텁자리 장비로 정밀 탐지를 벌여 불능화 여부를 알 수 있다. 군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GP 검증 당시 텁자리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선언 이듬해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반도 질서 변화를 위해 책임도 엄하게 짜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만한 북한도 문제지만, 허위 발표를 강행 했다면 우리 정부 측 책임은 더 크다. 아파트 하나가 무너져도 대형 인재가 발생하는 마당에 국민 전체의 생명이 걸린 사안을 두고 부실 검증 내지는 주의의 말만 믿고 넘어갔다면, 결코 북과 해선 안 될 일이다. 후속 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도 엄하게 짜여야 한다.



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자녀에게 중고폰 물려주는 프로그램 단독 론칭

LG유플러스가 삼성전

자와 함께 이용하지 않는 중고폰의 배터리를 무료로 교체해 자녀에게 새 폰처럼 물려줄 수 있는 '갤럭시 패밀리 폰 프로그램'을 16일 단독 론칭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모델이 삼성전자와 론칭한 '갤럭시 패밀리 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비른신문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n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전투데이

16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대전투데이



대전투데이 연중 환경 캠페인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 온난화’ 지금 멈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내일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주 관 | 대전투데이

DTN

후 원 |

한국장해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

KHFC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Daesang CLEAN Company Ltd.
대생리클린 대표이사 김경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본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충남지사

브이케이테크주식회사
www.vktech.co.kr

(주) 제이콘
JCON

충청환경에너지(주)

주식회사 레일웍스
CONSTRUCTION & MAINTENANCE

INSGREEN 주식회사 인스그린

More than Chemistry
 철원제약

Hanwha

Toshiba

Daesang CLEAN Company Ltd.
대생리클린 주식회사

제이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성개발산업

에이치디포장건설주식회사